

(1)이름과 출신 국가

이름 : 황정희

출신국가 : 대한민국

(2)직함(무엇을 하는 사람?)

직업 :캘리그래피작가, 공예지도사

사는 도시명 : 대전

(3)사진 제공

※화상 1:jpeg 형식 내용에 따른 것 1~3 장 정도

※화상 2:jpeg 형식 자신의 사진 1~3 장 정도

(4)내용:자기 소개 및 이하의 예를 참고로, 에히메에서의 삶이나 경험에 대해서 일본어 및 모국어로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캘리그래피 작가와, 공예지도사 (led 플라워 수석디자이너, 새활용 양말목 공예등)을 하고 있는 황정희입니다. 육아와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며 쉼없이 달려온 저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취미를 갖기로 결심하고 평소에 관심 있어하던 캘리그래피를 시작했어요. 취미로 시작한 캘리그래피가 너무 좋아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되었지요.

저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즐거움을 모든 감정을 담을수 있는 이 캘리그래피가 바로 나의 힐링이며 또 다른 사람의 힐링이 되는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쁜 일이 있는 사람에게 축하의 글을,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글을,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이팅의 글을,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사의 글을, 내마음의 이야기를 내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하는 모든 순간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고 같이 할수 있기에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작업이며 제가 사랑을 베풀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도쿄 아자주부반 갤러리에서 ‘한글 꽃 피우다’ 전시 후에 한국문

화원에 작품을 기증하면서 에히메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고 계신 장영순선생님과 인연이 되어 한.일 교류회 세모네모 워크샵 프로그램 진행자로 에히메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저는 짧은 기간에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으면서 현지인들이 말이 정말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천천히 말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이유를 그때야 알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과의 만남으로 저는 좀더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 때 사실 저는 일본어를 못하니까 현지 분들과 관광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시고 또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아시는 단어를 총 동원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는데 미리 지역에 대한 정보나 역사 등을 조사해 오셔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관광지마다의 느낌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관광하고 같이 식사하고 사진도 찍으며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 웃고 즐길 수 있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제가 그분들께 질문을 했어요

한국어를 왜 배우셨는지, 취미가 무엇인지,누구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화를 나눌수록 더 친숙하고 어색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대화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갈 때 사람과의 사람사이의 벽이 없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어떠한 매개체로 이루어진다면 나라와 국적, 나이를 떠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캘리그래피 워크샵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글과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해 내고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즐겁고 행복한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캘리그래피 강사로써 또 워크샵 진행자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워크샵 참여자를 다음날 만났을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서 이 재료로 캘리그래피를 쓰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뿌듯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선그리기 기초과정을 집에서 연습해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캘리그래피 강사를 하고 있고 또 캘리그래피로 힐링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국적,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로 뭉칠수 있는 이
작업이야 말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지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생각하고 연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같이 행복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같이 하고 나눌 수 있
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에히메현에 와서 더
많은 분께 힐링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조용하
고 좋은 곳. 이곳에 있기만 해도 힐링되는 에히메 그리고 여기 계신 제가 좋아
하는 모든 분들과 또 만나고 싶어요.

